民의 소리, 넋두리에서 함성으로

노래에 형상화된 광주민중항쟁

70년대 학생과 지식인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한 민족노래문화는 그후 80년 광주의 봄을 거치면서 그 질적심화와 양적확산을 가져왔다. 즉, 단순한 지식인적 감수성이 광주의 경험을 통해 좀더 냉철하고 성숙한 운동적 정서로 한단계 올라선 것이다.

또한 80년초 〈오월의 노래〉에 나타난 관찰자로서의 단순한 비극적 정서로부터, 그후 〈오월〉에 보이는 승리에의 치열한 확신에서 광주항쟁을 다룬 노래의 인식·정서적 변화를 살필 수 있다.

이에 본보는 지난 10년간 광주항쟁 관련 노래의 흐름과 양상을 인식하고 평가함으로써, 운동의 발전에 따라 광주 항쟁의 참모습이 노래속에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편집자註〉

이 영 미
〈 노래평론가 〉

I. 들어가는 말

노래는, 80년 광주항쟁의 엄청난 충격을 어떤 장르보다도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형상화한 장르였다. 노래는 소설이나 연극, 영화와는 달리 누구나 쉽게 만들어 부를 수 있는 예술이고, 입에서 입으로 즉, 비공식적 통로로 전해지는 경우에는 정치적인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광주항쟁 직후부터 그에 관한 노래들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려졌다. 광주항쟁 직후 80년의 살벌한 계엄령 하에서도 대학생들은 '남쪽나라 십자성은 어머님 얼굴…'로 시작하는 대중가요를 '남쪽나라 대통령은 살인마대장…'으로 바꿔 불렀다. 당시의 분위기는 경찰서, 안기부 등 각 기관에서 파견된 요원들이 대학의 벤치나 도서관, 학생처, 심지어 강의실에까지 상주했던 시절이었고 이러한 노래를 부른다는것만으로도 구속이 될 수 있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래가 유포되고 있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다룬 마당극공연은 물론, 봉산탈춤 공연조차도 철저히 막았던 분위기였으나, 그러한 서슬퍼런 억압도 숨죽여 노래부르는 대학생들의 입을 모두 막지는 못했던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노래는, 대부분의 시와 마찬가지로, 단형(短型)의 서정적 장르에 속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건이 아직 충격과 느낌의 차원에 머물고 있던 시기에도 예술적 형상화가 가능했다(문학에 있어서 광주항쟁의 형상화가 소설보다는 시에서 먼저 이루어졌던 것과 같은 현상이다). 개사곡과 같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른 예술장르에 비해 광주에 관한 노래가 비교적 풍부한 것은 바로 이러한 노래의 자생성과 일상성, 그리고 단형의 서정장르라는 특징 때문이다.

광주항쟁 직후인 80년대 초, 광주항쟁은 사람들에게 어떤 정연하고 논리적인 구조적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주었다기보다는, 일종의 엄청난 정서적, 감각적 충격으로 와 닿았던 측면이 강하다. 4·19 이후 가장 격렬하고 큰 대규모 시민항쟁이었다는 점과 수많은 죽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70년대까지의 많은 노래가 장조의 경쾌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해, 80년대 전반의 노래들은 단조의 비장한 노래가 주조를 이루었다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즉 80년대 전반의 많은 노래들은 죽음과 패배의 경험에서 생긴 비장한 정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고, 이는 바로 광주항쟁의 엄청난 죽음, 뒤이은 죽음과도 같은 정치적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낮은 어둡고 밤은 길어
허위와 기만에 지친 형제들
가자, 가자, 이 어둠을 뚫고
우리것 우리가 찾으러
(박치음 작사 작곡〈전진가〉)

대학내에서 일년에 수십번 집회가 열리는 오늘날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노래는, 바로 그러한 경험과 분위기의 산물이다. 2천여명의 엄청난 죽음을 체험하고, 거리에서는 물론이고 학교 안의 도서관이나 강의실, 잔디밭에서까지 말조심을 해야했던 시대를 살았던 학생들에게 '낮은 어둡고 밤은 길어'라는 이 표현과 음울하게 깔리는 선율, 그리고 이러한 암담한 분위기를 딛고 솟구치듯 절규하는 '가자, 가자…'의 후반부는, 주체할 수 없는 전율로 다가왔던 것이다.

즉 광주항쟁은 단지 광주항쟁 그러한 분위기의 산물이다. 당시 서울대 메아리 회원이었던 문승현(그는 그후 〈그 날이 오면〉, 〈이 산하에〉등을 지었다)이 81년에 만든 노래이다.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광주항쟁에 대한 인식과 정서는, 광주에서의 그 수많은 죽음을 그저 관찰자로서 지켜보기만하고 이 세상에 무력하게 살아남은 사람으로서의 회한과 부끄러움, 가슴 메어지는 슬픔, 그리고 광주령들에 대한 추모이다.

묘비 없는 죽음에 커다란 이름 드리오
여기 죽지않은 목숨에 이 노래 드리오
(〈오월의 노래〉 1절 중)

해저무는 분수가에 스몄던 넋이 살아
양천(仰天)의 눈매 되뜨는 이 질은 오월이여 (2절 중)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고 괴로움이었던 한 양심적 지식인의 인식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4월혁명을 노래한 이영도 작시, 한태근 작곡 〈진달래〉를 연상시킨다. '눈이 부시네 저기 난만히 멧등마다 / 그 날 쓰러져간 젊음같은 꽃사태가', '그렇듯 너희는 지고 욕처럼 남은 목숨 / 지친 가슴 위에 하늘이 무거운데'의 인식, 정서의 질과 〈오월의 노래〉의 그것은 매우 흡사하다.

〈오월의 노래〉는 이러한 느낌을 애잔하고 아름다운 문체와 선율에 담고있다는 점에서도 〈진달래〉와 매우 흡사하다. 곱고 여리고 여린 분위기로 형상화하였다는 점에서 〈오월의 노래〉와 유사성을 갖는다. 마치 〈그린 슬리브즈〉나 음유시인들이 현악기를 뜯으며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노래하는 것과 같은 느낌의 이 노래는, 1877년 영국 하이불란타이어 지방에서 일어난 200여명이 사망한 탄광폭발사고를 소재로 하고 있는 노래로서, 이러한 외국작품은 82, 83년 경에 서울대 메아리에서 광주항쟁을 소재로 하는 작품으로 번안하여 가사를 붙였고, 그 후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공연으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84년경 메아리 출신으로, 〈우리 이야기〉의 작자이기도 한 김인보가 만든 〈찢어진 깃폭〉도 역시 광주항쟁의 죽음의 비극을 노래하고 있으나, 이 두 작품처럼 여린 느낌을 주지는 않는 노래이다.

III. 80년대 전반기의 노래

81, 82년경 광주지역에서 만들어졌다고만 알려지고 있는 〈무등산가〉와 84년 김준태의 시에 이미영이 곡을 붙인 〈부서지지 않으리〉는 앞의 노래들에 비해 다른 인식과 정서의 질을 가지고 있다.

〈무등산가〉는 비교적 초기에 만들어진 작품이라서, 역시 죽음으로 인한 무거운 비극적 분위기가 전편에 깔려있는 작품이지만, 앞의 노래들에 비해 그 정서는 훨씬 선이 굵고 남성적이다.

아, 어둡던 날, 압제의 먹구름
육진장포 일곱 매듭 끊었던 그 날
오르지 못할 산, 뉘 이름 탓이런가
우리는 쓰러져 쓰러져
핏물진 포도 위로 비둘기 날지 않고
군화 발자욱, 발자욱
오르지 못할 산, 뉘 이름 탓이런가
주검을 묻어라, 총칼을 들어라
이 깊은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하여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 일어나

꽃이나 소녀 등의 단어와는 그 느낌이 현격히 다른 '무등산'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나, 당시로서는 매우 대담한 표현이었던 '핏물진 포도', '군화발자욱' 등의 구체적인 표현이 눈에 띈다. 특히 '육진장포 일곱 매듭 끊었던 그 날'로 집약되는 광주항쟁의 싸움의 의미와 그 역동성이 작품 전편에 깔려 있어, 마지막 부분의 '죽은자 가운데 일어나 일어나'가 가능해지고 있다.

꼭 같이 광주항쟁 직후의 작품이건만 이렇게 그 죽음을 형상화하는 인식과 정서의 질이 다른 것은 무엇보다도 싸움의 주체로서의 경험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쓰러져 쓰러져'의 '우리'라는 표현에서 잘 나타나듯이, 죽고 쓰러진 것은 저멀리 있는 '광주의 열사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나'라는 인식은 광주항쟁의 싸움의 주체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며, 그만큼 그 죽음의 의미와 느낌도 양심적인 관찰자들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단순한 노래가 아닌데다가 악보로 채보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입으로만 전해져서 악곡이 난삽한 편이나, 끈끈하고 질기면서 비극적인, 국악적 느낌을 가미한 악곡도 작품 전체의 느낌과 잘 어울리고 있다.

광주지역의 시인인 김준태의 시에 이미영이 곡을 붙인 〈부서지지 않으리〉도 광주의 죽음에 대한 단순충격을 극복하고자 하는 작품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라지고 부서진다는 것은 단지 다른 모양이 되는 것일 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 결국 사라지고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끝없이 파란 불꽃을 튕기고 있다는 것 등 이 작품의 다분히 사변적인 가사내용은, 광주나 오월이라는 말을 한 마디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죽음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 노래에서 보여지는, 광주항쟁의 죽음의 패배감에서 사변적으로나마 벗어나고자 하는 눈물겨운 노력은 역설적으로 이들에게 죽음의 패배감이나 단순비극성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가를 반증해준다. 결국 이들 두 노래는 죽음에 대한 단순비극성이나 패배감을 극복하고 있으나 확실히 승리의 관점에는 획득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과도기적인 작품들이다.

IV. 광항의 재인식을 거치며

죽음의 단순비극성과 패배감의 극복, 승리적 관점과 낙관성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한 획을 긋는 작품은 역시, 〈임을 위한 행진곡〉과 〈오월〉이다.

이 작품은 독립된 노래로 전국적으로 빠르게 유포되었지만, 사실 광주항쟁의 지도부의 한 사람이었고 도청을 사수하다 죽은 윤상원열사의 영혼결혼식을 모델로 한 노래극 〈넋풀이〉(일명 빛의 결혼식) 중에 나오는 노래이다. 〈넋풀이〉는 광주지역 문화운동패들과 대학가요제 출신의 김종률 등이 함께 만든 작품으로, 공연이 되기도 했으며 녹음테이프로 제작, 유포되어 많이 알려졌다.

광주항쟁에서 함께 죽은 한 남성노동자와 여대생을 영혼결혼시켜주는 내용인 〈넋풀이〉는, 〈임을 위한 행진곡〉말고도 〈회상〉, 〈무등산 자장가〉, 〈에루화 에루얼싸〉 등 새로 만들어진 꽤 여러편의 노래와 간단한 대사, 문병란의 시, 영혼결혼을 시켜주는 굿 등이 엮어져 구성되어 있는 약 30분가량의 소품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그 중 영혼결혼식의 마지막에 죽은 자가 부르는 노래로, 죽은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규정하고 '산자'를 격려하는 노래이다(현재 많은 사람이 '앞서서 나가니'로 부르고 있는 귀절은 실상 '앞서서 가나니'이다). 〈넋풀이〉의 앞의 노래들이 대부분 슬픈 노래들임에 비해, 이 노래는 팽팽한 자진모리 반주에 맞추어 힘차게 불려진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는, 백기완의 시에 그 귀절귀절이 흩어져 들어있어 후에 '백기완 작시'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작품의 창작에 간여했던 소설가 황석영이 가사를 쓴 것이라고 한다.

이 노래는 광주항쟁의 죽음을 확실히 승리의 관점으로, 낙관적이고 역동적인 투쟁의 정서로 형상화하는 기점에 위치한 작품이다. 물론 아직은 그 승리의 관점은 '부활'로서밖에 드러낼 수 없지만, 광주항쟁을 치른 두 해만에 획득한 것이라는 점에서